

# A2003연금 혼합2형(VL)

## ※ 공지 사항

1. 자산운용보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의거 자산운용회사가 작성하며, 투자자가 가입한 상품의 특장기간(3개월)동안의 자산운용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여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연금 혼합2형(VL)의 자산운용회사인 ABL생명보험이 작성하여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인 우리은행의 확인을 받아 판매회사인 ABL생명보험을 통해 투자자에게 제공됩니다. 다만 일괄 예탁된 펀드의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확인기간은 일괄 예탁된 날 이후 기간에 한합니다.
3. 자산은 신원자산운용에 의하여 투자일임 운용됩니다.
4. 각종 보고서 확인 : ABL생명보험 <http://www.abllife.co.kr/02-3787-7000>  
 금융투자협회 <http://dis.kofia.or.kr>

## 1. 펀드의 개요

### ▶ 기본정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펀드 명칭	연금 혼합2형(VL)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44705		
펀드의 종류	액보형, 추가형, 일반형	최초설정일	2004.05.25
운용기간	2018.04.01 ~ 2018.06.30	존속기간	취항으로 별도의 존속기간 없음
자산운용회사	ABL생명보험	펀드재산보관회사	우리은행
판매회사	ABL생명보험	일반사무관리회사	하나펀드서비스
상품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한된 주식투자로부터 부분적으로 고수익을 추구하며, 주로 국공채, 특수채, 그리고 제한된 수량의 우량등급의 회사채에 투자함으로써 적정 수준의 자본 이득과 이자 수익을 달성함에 있습니다.</li> <li>• 포트폴리오 전략은 초과수익을 위한 여러 요인들(듀레이션, 수익률선, 신용, 고평가/저평가 분석 등)을 활용하여 벤치마크 대비 초과 수익을 달성하는 것입니다.</li> </ul>		

### ▶ 재산 현황

아래 표를 통하여 당기말과 전기말 간의 자산총액, 부채총액, 순자산총액 및 기준가격의 추이를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백만좌, %)

펀드명칭	항목	전기말	당기말	증감률
연금 혼합2형(VL)	자산 총액 (A)	45,607	43,601	-4.40
	부채 총액 (B)	428	141	-66.98
	순자산총액 (C=A-B)	45,179	43,460	-3.80
	발행 수익증권 총 수 (D)	24,698	24,032	-2.69
	기준가격 (E=C/D×1000)	1,829.28	1,808.41	-1.14

※ 기준가격이란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에 입금(매입), 출금(환매)하는 경우 또는 분배금(상환금포함) 수령 시에 적용되는 가격으로 펀드의 순자산총액을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눈 가격을 말합니다.

## 2. 운용경과 및 수익률현황

### ▶ 운용경과

[주식부문] 2분기 주식시장은 약세 장세였습니다. 금리 변동성 확대, 보호무역주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약재로 주식시장은 3개월째 2,400선을 횡보하였으나 4월 남북 정상회담이 원만하게 마무리되면서 조만간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기대감으로 KOSPI는 2500선을 회복하였습니다. 5월 주식시장은 남북 정상회담 이후 강세 흐름을 보이며 월 초반 KOSPI 2500pt를 상회하기도 하였으나 연준의 공격적 금리인상에 대한 우려, 이탈리아 정치 불안 우려,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 재점화, 중국 A 지수의 MSCI 펀딩에 따른 외국인들의 리밸런싱이 이루어지면서 2423.01pt로 마감하였습니다. 6월 주식시장은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대형 호재가 있었지만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며 실망매물이 출회하였고 이와 더불어 선진국과 신흥국간의 경기모멘텀 괴리,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승에 따른 통화정책 가속화 우려로 인한 외국인 자금 이탈 그리고 미-중 무역갈등 심화 등으로 조정을 보이며 장 중 한때 KOSPI가 2,300선을 깨기도 하였으나 2,326.13선에서 마감하였습니다. 투자자별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4조원, 2.7조원을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이끌었고 개인은 5.8조원을 순매수하며 지수의 하방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업종별로는 비금속광물, 건설업, 섬유업, 종이목재, 음식료업종이 강세를 보였고 운수창고, 운수장비, 보험, 제약업종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규모별로는 개인들의 매수세로 코스닥이 가장 강세를 보였고 대형주는 중소형주 대비 강세를 보였습니다.

펀드는 이러한 변동성에 대비하여 가능한 시장 베타를 낮추고 안정적인 종목들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가치 대비 저평가되어 있고 기존에 실적 저조 인해 주가가 많이 하락한 종목들 중에서 향후 실적 개선이 가능한 종목들, 현금성 자산 비중이 높아 향후 배당 증가 가능성과 M&A를 통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편입비중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펀드에서는 목표가격에 도달한 종목들은 이익 실현하면서 저평가된 종목들은 편입비중을 늘리거나 신규 편입하였습니다.

[채권부문] 4월 미국은 경기 지표가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유가 상승이 물가를 끌어 올릴 것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올해 4차례 금리 인상 기대감으로 미국 10년 국채 금리는 3%를 돌파하였습니다.

다. 미국 금리의 상승에 따라 국내 금리도 소폭 상승하였으나 월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금리는 다시 반락하였습니다. 5월 미국 금리는 3%대를 돌파한 후 높은 금리레벨에 대한 부담과 이탈리아 정치 불안, 신흥국 금융시장 혼란이 겹쳐져 월말에는 2.80%대까지 하락했습니다. 국내 금리는 미국금리에 연동되어 전고점까지 상승한 이후 계속되는 고용지표 부진과 청와대 경제자문회의 의장의 경기침체우려 발언, 금융위의 만장일치 금리동결 등으로 다시 전월 수준까지 하락했습니다. 6월 미국 금리는 월초 소폭 상승하였으나 이후 미국 경기사이클 고점 논란이 심해지고 글로벌 무역분쟁 우려도 커짐에 따라 금리 하락세는 월말까지 이어졌습니다. 해외금리 하락과 함께 국내금리 또한 전 구간에 걸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금월 공개된 5월 금융위 의사록이 예상보다 매파적이었지만 고용지표를 필두로 한 국내 경제지표의 부진이 이어지면서 한은의 연내 추가 금리 인상 여력이 줄어들었다는 시장의 판단 등이 국내 금리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당사는 해외금리 하락과 글로벌 무역분쟁, 국내 경제지표 부진으로 채권금리가 전저점까지 하락함에 따라 기존의 높은 수익률구간의 종목을 일부 이익실현하면서 듀레이션을 소폭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아직까지 금리 인상은 남아 있으며 금리 상승 위험이 작으면서 캐리메리트가 있는 1.5년~2년 구간의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였습니다.

### ▶ 투자환경 및 운용 계획

[주식부문] 향후 주식시장은 글로벌 무역갈등의 전개 방향, 2분기 기업들의 실적 발표, 환율 상승에 따른 외국인 추가 매도세 여부, 경기정점 논란 등에 따라 변동성 장세가 예상됩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중국, 유럽연합(EU) 국가 등과 무역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틈새에서 수출이 성장을 이끌고 있는 한국 경제에는 큰 타격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역전쟁의 지속은 미국 경제에도 결국 타격을 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분기 기업들의 실적은 시장 예상보다는 저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요인들과 환율 상승에 따른 외국인들의 매도세로 시장은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목별로는 저평가되어 있으면서 향후 실적 개선이 가능한 종목들은 양호한 주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분간 주식시장은 모멘텀의 부재로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PBR 1배 수준인 KOSPI 2300선을 깨고 내려갈 만큼의 경기 침체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수는 박스권에서 움직이면서 종목별로 차별화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펀드에서는 목표가격에 도달한 종목들은 이익실현하면서 펀드 내에서 의미없는 비중의 종목들은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향후 실적 개선이 가능하면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의 비중을 늘리면서 지금보다 종목 집중화를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채권부문] 미국은 양호한 경기흐름이 지속되고 있고, 물가도 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연준의 목표치인 2%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따라서 FOMC에서는 9월, 12월 추가적으로 두차례 더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유럽발 정치불안, 미중 무역협상 등은 계속적으로 불확실성을 야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한국은 고용과 물가가 계속 부진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어서 시장 예상과는 달리 만장일치 금리동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중 무역분쟁이 심화되고 있어서 한국 경제에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고용과 물가 지표가 향후 통화정책 변화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국과 한국의 경기모멘텀이 엇갈리고 있어서 금리 레벨의 상하단이 제약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는 미국과 한국의 경기모멘텀이 엇갈리고 있어서 박스권금리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금리 레벨에 따라 듀레이션을 조절할 계획입니다. 특히, 국내의 경우 최근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고용과 물가 지표가 향후 통화정책 변화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되며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글로벌 경기 흐름을 확인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 ▶ 기간(누적)수익률 (단위 : %)

구분	최근 3개월	최근 6개월	최근 9개월	최근 12개월
연금 혼합2형(VL)	-1.14	-1.30	-1.13	-0.71
(비교지수 대비 성과)	(-0.54)	(-0.89)	(-1.45)	(-1.13)
비교지수(벤치마크)	-0.60	-0.41	0.32	0.42

※ 비교지수(벤치마크) : 한경-KIS 국고채 (4년~5년) 21%, 통안채종합 (3개월~1년) 7%, 특수채지수 (1~3년) 20%, 지방채 (4년~5년) 7%, 은행채 (1년~2년) 7%, 회사채 (1년~2년) 3%, 유동성 10% 그리고 KOSPI 25%

\* 위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위 : %)

구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연금 혼합2형(VL)	-0.71	4.19	4.55	11.03
(비교지수 대비 성과)	(-1.13)	(-1.82)	(-2.98)	(-6.67)
비교지수(벤치마크)	0.42	6.01	7.53	17.70

※ 비교지수(벤치마크) : 한경-KIS 국고채 (4년~5년) 21%, 통안채종합 (3개월~1년) 7%, 특수채지수 (1~3년) 20%, 지방채 (4년~5년) 7%, 은행채 (1년~2년) 7%, 회사채 (1년~2년) 3%, 유동성 10% 그리고 KOSPI 25%

\* 위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 손익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손익 합계
	주식	채권	어음	집합 투자	장내	장외		실물 자산	기타			
전기	-74	171	0	0	0	0	0	0	0	6	-167	-64
당기	-603	262	0	0	0	0	0	0	0	4	-161	-4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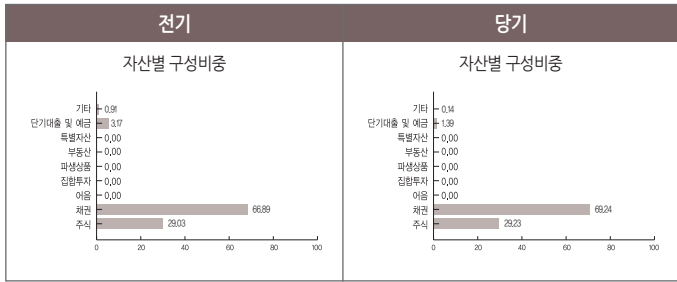
### 3. 자산현황

#### ▶ 자산구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 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 투자	장내	장외		실물 자산	기타			
KRW (1.00)	12,743 (29.23)	30,191 (69.24)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605 (1.39)	63 (0.14)	43,601 (100.00)
합계	12,743	30,191	0	0	0	0	0	0	0	605	63	43,6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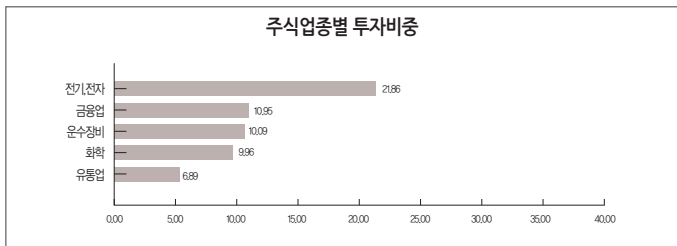
\* ( ) : 구성비중



#### ▶ 주식업종별 투자비중

(단위 : %)

순위	국가명	비중	순위	국가명	비중
1	전기, 전자	21.86	6	건설업	4.44
2	금융업	10.95	7	서비스업	4.23
3	운수장비	10.09	8	제조	3.92
4	화학	9.96	9	철강및금속	3.62
5	유통업	6.89	10	기타	24.04



####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단위 : %)

순위	구분	종목명	비중	순위	종목명	비중	
1	채권	국고02000-2209(17-4)	7.98	6	채권	삼성카드2112	4.67
2	채권	국고02375-2303(18-1)	6.94	7	채권	수신금융채권(은행)18-2013-13	4.63
3	채권	산금17신이0200-0913-1	6.87	8	채권	동안02120-2004-02	4.62
4	채권	통안0160-1904-02	5.75	9	채권	수신금융채권(은행)17-702-21	4.59
5	채권	국민주택1총17-10	5.65	10	채권	신한은행21-07-아3-A	4.58

### ■ 각 자산별 보유종목 내역

#### ▶ 채권

(단위 : 백만원, %)

종목명	액면가액	평가액	발행국가	통화	발행일	상환일	보증기관	신용등급	비중
국고02000-2209(17-4)	3,500	3,478	대한민국	KRW	2017-09-10	2022-09-10		N/A	7.98
국고02375-2303(18-1)	3,000	3,025	대한민국	KRW	2018-03-10	2023-03-10		N/A	6.94
산금17신이0200-0913-1	3,000	2,996	대한민국	KRW	2017-09-13	2019-09-13		AAA	6.87
통안0160-1904-02	2,500	2,506	대한민국	KRW	2017-04-02	2019-04-02		N/A	5.75
국민주택1총17-10	2,500	2,464	대한민국	KRW	2017-10-31	2022-10-31		N/A	5.65
삼성카드2112	2,000	2,037	대한민국	KRW	2014-05-22	2019-11-22		AA+	4.67
수신금융채권(은행)18-2013-13	2,000	2,021	대한민국	KRW	2018-02-13	2021-02-13		AAA	4.63
동안02120-2004-02	2,000	2,013	대한민국	KRW	2018-04-02	2020-04-02		N/A	4.62
수신금융채권(은행)17-702-21	2,000	2,002	대한민국	KRW	2017-07-21	2019-07-21		AAA	4.59
신한은행21-07-아3-A	2,000	1,997	대한민국	KRW	2017-07-13	2020-07-13		AAA	4.58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및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기재

### 4. 투자운용전문인력 현황

#### ▶ 투자운용인력(펀드매니저)

(단위: 개, 백만원)

성명	직위	나이	운용중인 펀드 현황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및 일임계약 운용규모		협회등록번호
			펀드개수	운용규모	펀드개수	운용규모	
이현구	부서장	51	76	2,265,935	-	-	2111000044
차인식	차장	50	76	2,265,935	-	-	2118000653
이하경	과장	34	76	2,265,935	-	-	2118000654

\* 성명이 굵게 표시된 것이 책임투자운용인력이며, '책임투자운용인력'이란 투자운용인력 중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있어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함.

\* 펀드의 투자운용인력 변경내역 등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의 수시공시 등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 <http://dis.kofia.or.kr>) 단, 현회 전자공시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와 본 자산운용보고서가 제공하는 정보의 작성기준일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기간	운용전문인력
2011.01.15 ~ 현재	이현구
2018.05.29 ~ 현재	차인식
2018.05.29 ~ 현재	이하경
2018.01.15 ~ 2018.05.28	정우진
2009.02.04 ~ 2018.01.12	남정은
2012.11.05 ~ 2016.04.22	오인철

### 5. 비용 현황

#### ▶ 업자별 보수 지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전기		당기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자산운용사	11	0.02	11	0.02	
판매회사	64	0.14	62	0.14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1	0.00	1	0.00	
일반사물관리회사	2	0.00	2	0.00	
보수합계	78	0.17	77	0.17	
기타비용**	0	0.00	0	0.00	
매매·중개 수수료	단순매매·중개수수료	6	0.01	7	0.02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0	0.00	0	0.00
합계	6	0.01	7	0.02	
증권거래세		0.02	10	0.02	

\* 펀드의 순자산총액(기간평균) 대비 비율을 나타냅니다.

\*\* 기타비용이란 회계감사비용, 증권 등의 예약 및 결제비용 등 펀드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매매·중개수수료는 제외합니다.

\* 성과보수내역 : 해당 없음

\* 발행분담금내역 : 해당 없음

#### ▶ 총보수, 비용비율

(단위 : 연환산, %)

	총보수·비용비율(A)	매매·중개수수료 비율(B)	합계(A+B)
전기	0.6945	0.0462	0.7407
당기	0.6934	0.057	0.7504

\* 총보수·비용비율(Total Expense Ratio)이란 운용보수 등 펀드에서 부담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균 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총 보수·비용수준을 나타냅니다.

\*\* 매매·중개수수료 비율이란 매매·중개수수료를 순자산 연평균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매매·중개수수료의 수준을 나타냅니다.

### 6. 투자자산매매내역

#### ▶ 매매주식규모 및 회전을

(단위 : 백만원, %)

매수		매도		매매 회전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해당기간	연환산
74,233	3,587	100,302	3,463	26.51	106.34

\* 매매회전을이란 해당 운용기간 중 매도한 주식의 총액을 그 해당 운용기간 중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매매회전을이 높을경우 매매거래수수료(0.1% 내외) 및 증권거래세(매도시 0.3%) 발생으로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펀드비용이 증가합니다.

#### ▶ 최근 3분기 매매회전을 추이

(단위 : %)

2017-10-01 ~ 2017-12-31	2018-01-01 ~ 2018-03-31	2018-04-01 ~ 2018-06-30
45.33	21.73	26.51